노란 신호등, 초등생 교통사고 예방

전주시, 새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개선… 안전운전 · 서행 유도 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총 800만원을 들여 새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과 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새연초등학교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 점검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개선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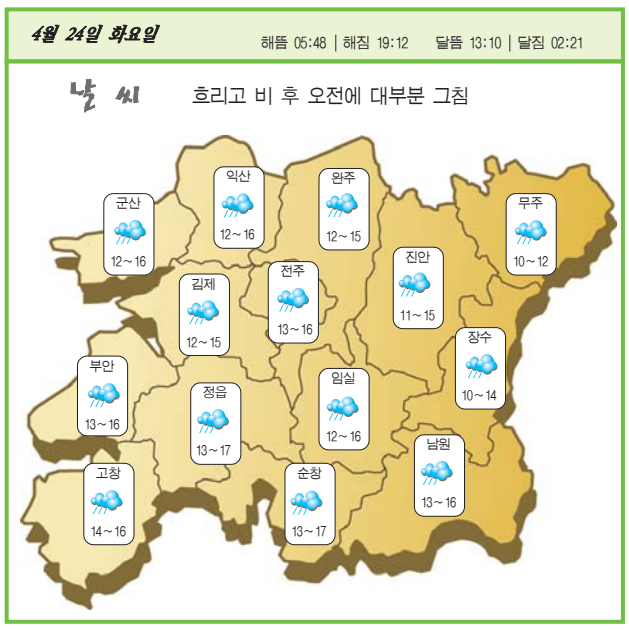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노란색 등 특수색을 사용할 수 있다는 LED교통신호등 표준지침에 의거, 새연초등학교 인근 거리의 검은색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행등과 잔여시간표시기, 3색 차향등 등이 기존 검은색에서 시인성이 뛰어난 안전색깔인 노란색으로 바뀌어, 먼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나머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1개소에도 노란색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전북 에너지위원회 회의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최정호 정무부지사(위원장)가 도의원, 에너지 전문가, 기관·단체, 시민대표 등 21여 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및 정부 에너지 정책 설명과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한 후 2018년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 노란색 신호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서행을 유도하려 한다"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신호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



전북대, 빅데이터 전문인재 양성

'청년인재 양성 운영대학' 선정… 5월 28일까지 교육생 모집

전북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경쟁력이자 전제조건인 빅데이터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중심의 빅데이터 전문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5월 28일까지 33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전북대는 호남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나 지역경제 현황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 등 비 IT계열 전공자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문학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IT 기술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은 빅데이터 입문과정을 비롯해 프로그래밍 랭귀지, 기계학습 실습 등이 교육되며,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소속 교수들이 교육에 참여한다.

양동민 교수는 "전라도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지역거점대학교인 전북대의 의무."라며 "최고의 빅데이터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교대 4학년생 대상 '혁신교육 아카데미' 열어

전북도교육청이 전주교대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혁신교육 아카데미를 열어 전북 혁신교육을 전파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등 예비교사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혁신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4년째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전주교대 4학년 재학생들을 시작으로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강의와 토론, 사례 나눔 등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배 교사들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길러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중요시되는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 사례, 인성인권 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이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상민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

전주시, 5월 1일~6월 10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지원

전주시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1억 600만원을 투입해 대학생들이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금(생활비 제외)의 2018년도 발생이자 전액을 상반기(5~6월)·하반기(10월)에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과거 4월 한 달간 진행했던 신청자 접수기간을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실행 기한이 5월 10일까지인 것을 감안, 더 많은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기 위해 5월부터 접수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5월 1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국의 모든 대학생으로, 휴학생을 포함(군복무자·대학원생 제외)하여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학생 본인이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접수 창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다. 시는 대상 적격 확인과 대출정보 조회를 거쳐, 오는 8월 초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안내는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왔으며, 지난 2016년 902명, 지난해 984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가계 부담 경감을 도왔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올해부터는 신청자 접수가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이뤄지는 만큼,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출이자 지원만으로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교육청소년과(063-281-5313)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반

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 연수 24~26일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2018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본청 2층 강당에서 24~26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정책의 이해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해 업무담당 부서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어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바로알기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으로 교육자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민 기자